

“핏줄 넘어 법연으로 다시 태어났죠”

출가 4형제 스님 인터뷰

부산광명선원 주지 금강 스님
반나라마 지도법사 붓다빠라 스님
통도사 포교국장 명본 스님
범어사 사서국장 법성 스님

지난 4월 부산 광명선원 이전 법회에는 주지 금강 스님을 비롯해 반나라마 지도법사 붓다빠라 스님, 통도사 포교국장 명본 스님, 범어사 사서국장 법성 스님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선원 이전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이들의 만남이 특별한 이유는 출가한 4형제 스님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다. 세속 사람들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4형제가 한 번에 출가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출가 과정과 앞으로의 다짐을 들어보았다.



경남 삼천포에서 출생한 4형제가 연달아 출가해 곳곳에서 전법 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다. 왼쪽부터 4남 명본 스님, 장남 금강 스님, 3남 붓다빠라 스님, 막내 법성 스님

삼마를 경남 삼천포에서 평범하게 자란 4형제 스님의 출가 이야기는 담백했다. 총 5형제중 4형제가 스님이 되셨으니 무언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기대했지만 그것은 역시나 특별함을 꿈꾸는 속인들의 욕심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출가한 삼촌의 모습이 훌륭해 보였고 출가한 형님의 모습에서 불교가 좋고 절집이 살만한 곳 같이 보여 자연스럽게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4형제 스님의 공통된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들 4형제의 출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먼저 할머니의 깊은 불심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삼촌이 출가를 했고 이후 만형인 금강 스님이 그 뒤를 이었다. 형님 보라 절에 갔던 셋째 붓다빠라 스님이 그 길로 출가했고, 그리고 넷째 명본 스님, 막내 법성 스님까지 차례로 출가가 이어졌다. 그나마 출가는 안했지만 통도사 측사암 수암 스님 밑에서 3년을 수학한 둘째는 그의 아들이 현재 출가해 승가대학에서 열심히 수학 중이다. 다섯 형제 모두 출가의 연을 맺고 있는 셈이다.

출가한 4형제 중 첫째 금강 스님은 1967년 석암 스님이 주석중인 부산 선암사로 출가했다. “어린 눈에 스님이 된 삼촌이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농사 짓고, 배나 탔으면 했지만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배타고 부산 선암사로 갔습니다. 삼촌 스님 밑으로 가면 어머니가 찾아오실까 해서 낯선 곳을 찾아 갔는데 그곳이 선암사였습니다”

금강 스님은 20여 년 전 부산 광명선원을 개원한 이후 김해 대법륜사를 창건해 불교대학과 하루 광명진언, 만 번 10년 수행 결사를 펼치며 부산과 김해지역 도심포교의 이정표 역할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출가 후 군대 신체검사 하러 고향에 가니 친구들이 ‘어쩌다 중이 됐노? 아깝다’며 저를 축근하게 보더군요. 그렇게 한참 세월이 흘러 50대에 다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스님 절에 처사 자리 하나 없습니까’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인생을 알고 나면 수행자만큼 영광스럽고 좋은 길은 없을 것입니다”

금강 스님은 출가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출가한 것이 그저 자랑스럽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스님들을 동생으로 두었느냐는 것이죠. 감격해서 공양을 대접하는 분도 있죠.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셋째 붓다빠라 스님은 큰 형님인 금강 스님이 반나라마의 장건주라고 말한다. 결국 금강 스님을 통해 전법의 길을 걷는 수행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통도사로 출가한 붓다빠라 스님의 범명은 본원이다. 통도사승가대학과 동국대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만형 금강 스님 출가 영향 받아
4형제 연달아 수행자 길 걸어
각 수행처에서 포교 활동 전념
인도 무료의과대 설립 공동 원력

받고 한국 선방도 다녔고 동국대에서 2년간 강의도 했다. 그러던 중 1996년부터 인도 부다가야 선원과 미얀마 마하시 선원에서 10여년의 수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재 스님은 사미 수행법을 펼치고 있는 반나라마의 지도법사로 근본불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붓다빠라 스님은 수행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전법 원력도 크다.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마음건강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스님은 현재 모금단체인 ‘맑은향기(www.sati.me)’를 설립해 인도불교 중흥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인 마음과학대학원과 무료의과대학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출가를 한 이는 넷째 명본 스님이다. 명본 스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부산 보현사 절집에 살았습니다. 큰 형님께서 아버지처럼 대해

주셨고, 큰 형에 이어 셋째 형까지 출가하는 것을 보며 그저 웃음이 임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출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명본 스님은 통도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 동국대 인도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육조사 강사 등을 거쳐 현재 통도사 포교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특히, 통도사 내 사회교육원을 개설 붓다빠라 스님과 함께 사미 수행법을 재가불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아들 셋이 출가하는 동안 어머니는 묵묵히 이들의 출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막내인 법성 스님의 출가는 달랐다. “출가하고 6-7년을 어머니께서 마음을 끓이셨죠. 막내인 저까지 출가하는 것이 많이 안타까우셨나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스님은 애써 말을 아꼈다.

법성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해 동국대 불교학과 석·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삼보사, 백림사에서 포교 활동을 했으며 공군중장교로 10년을 근무했다. 2011년에는 조계사 근처에 법화경연구소 ‘법성사’를 개원해 《법화경》을 설회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법화경 사요품-법화경의 네가지 보석》을 출간했다. 현재는 범어사 사서국장과 한반도평화대회 간사 소임을 맡고 있다. 스님은 “올해는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가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역사적인 해다. 간사 소임을 맡은 만큼 한국 불자들의 가슴에 큰 희망과 환희심을 심어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출가 4형제의 공동 원력은 무엇일까? 붓다빠라 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부다가야의 무료의과대학 등의 설립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도 부다가야에 무료의과대학을 설립해 인도에 불교를 살려내는 동시에 불교의 자비정신과 마음건강운동을 전세계에 펼치고 싶다”고 4형제는 말한다. 스님을 양성하기 위한 인도 마음과학전문대학원은 2014년 1월에는 수업을 시작할 만큼 진척을 이루었으며 2016년에는 정식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무료의과대학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그저 절이 좋아 15세에 출가한 중학생 도반 동갑 형자 ‘화계’

화계사 원문·원타 형자

화계사에는 특별한 동갑내기 형자들이 있다. 낮에는 화계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행자생활을 하는 원문·원타 형자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 둘은 지난 1년 동안 화계사에서 행자 생활을 해왔고 이번 가을 행자교육을 마치면 사미계를 받는다. 이들의 출가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어렸을 때 절에 들어와 사는 동진출가와는 다르게 스스로의 선택으로 출가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물질문명의 편리함 속에 자란 이들은 절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 좋다고 말하는 의젓함까지 보이니 이들이야말로 전생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전생애 스님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지난해 2월 출가한 원타 형자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고 집에 모신 작은 불상 앞에서 매일 관음기도를 할만큼 신심이 깊다. 스님이 30년 썩던 목탁을 선물할만큼 원타 형자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스님들 권유로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밑으로 출가를 하게 된 것이다.

“절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아침 예불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딱 채워져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게임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학교 다니는 것이 크게 부럽지는 않아요. 절의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원문 형자 역시 지난해 4월 수암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고 출가 1년 전부터는 매일 절에 나갔다. 원문 형자도 스님들의 추천과 부모님 권유로 출가했다.

“이곳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요. 스님들이랑 생활하는 절 생활이 좋습니다. 스스로 고요하게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절생활 4~5년은 돼

야 느낄 수 있는 장점을 어린 형자들 입에서 들으니 주변 스님들도 그저 놀라움 뿐이라고 감탄사를 내뱉는다.

이들의 일과는 새벽 4시 예불 아침 공양 준비를 시작으로 학교를 다녀와서는 저녁예불 준비하고 학교 숙제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한다. 물론 행자가 배워야 할 《초발심 자경문》 등의 기본교육도 필수로 받고 있다. 그리고 올 가을 수계식에 사미계를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10년후 이들은 어떤 모습을 꿈꾸고 있을까? 원타 형자는 불화장을 꿈꾼다. “불화를 그리고 싶어요. 변상도는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저도 많은 이들에게 불화를

원타 불화 그려 불법 쉽게 전달 ‘꿈’ 원문 선방 수좌 ‘꿈’...지금도 명상

통해 부처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불화장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혼자서 그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원문 형자는 선방수좌로 살고 싶다고 말한다. “모든 일과를 끝내고 혼자서 명상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화두 하나에 몰입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두 형자는 화계사 뜰에서 포즈를 취했다. 둘은 우연하게도 같은 시간에 같은 나이에 절에 들어와 도반이 되었다.

10년 후 서로 다른 모습의 수행자가 되어 있을지 모를 두 형자는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구도자의 길에 들어선 그들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감동을 전해주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지난해 2월과 4월에 15세의 나이로 출가한 화계사 수암 스님의 성좌 원문(왼쪽), 원타 형자.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남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에는 때를 가려서 말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하여야 한다. <증지부경전>

<p>한국불교태고종</p> <h3>보은산 금곡사</h3> <p>주지 보각스님</p> <p>■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1012-2번지 전화 061)433-3407</p>	<p>대한불교조계종</p> <h3>보승사</h3> <p>주지 영도</p> <p>신도일동</p> <p>■ 전남 순천시 연향동 1442-4번지 전화 061)723-3161</p>	<p>대한불교조계종</p> <h3>관음사</h3> <p>주지 대요</p> <p>심청의 설화가 깃들어 있는 관음도량 템플스테이 운영사찰</p> <p>■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2번지 전화 061)362-4433</p>	<p>대한불교 조계종</p> <h3>송광사 광주포교당 길상사</h3> <p>주지 도제</p> <table border="1"> <tr> <td>새벽예불</td> <td>매일 오전 5시</td> </tr> <tr> <td>보조어록수심결 강의</td> <td>매일 오전 5시 30분</td> </tr> <tr> <td>일요가족법회</td> <td>매주 일요일 오전 10시</td> </tr> <tr> <td>어린이법회</td> <td>매주 토요일 오후 3시</td> </tr> <tr> <td>중고등부법회</td> <td>매월 2·4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td> </tr> <tr> <td>묵려합창단 연습</td> <td>매주 수요일 오후 1시</td> </tr> </table> <p>■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전화 062)955-4407 www.kilsang.kr</p>	새벽예불	매일 오전 5시	보조어록수심결 강의	매일 오전 5시 30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중고등부법회	매월 2·4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묵려합창단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p>대한불교조계종</p> <h3>문빈정사</h3> <p>사부대중 일동</p> <p>■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p>
새벽예불	매일 오전 5시															
보조어록수심결 강의	매일 오전 5시 30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중고등부법회	매월 2·4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묵려합창단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